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미한 의제사전

의 신 쓸 알



●●● 2021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 훑어보기 ●●●

신미한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아니하고 신중하다

환경

- 01. 시민 중심 기후위기 대응 : RE100시민클럽
- 02. 대구 탄소중립 추진 협의체 프로젝트 : 기후위기 대응 시민 역량 강화
- 03.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전환 마을 프로젝트 추진

청년

- 04. 청년 진로 및 자아탐색을 위한 도시근교형 캠퍼스 프로젝트 : 청도
- 05. 지역유희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 및 주민 커뮤니티 조성 : IDEA COMMONS
- 06. 문화예술프리랜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 Fsquare

공존

- 07. 업마와 동반하는 사회적 모성에 기반 마련과 인식확산
- 08.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지원
- 09. 매입임대주택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코로나대응

- 10.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 : 시민 응원 팝업사진관 운영
- 11. 코로나 속에서 청소년 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12. 지역기업의 성장을 위한 데이터 활용 및 수출역량강화

지역사회

- 13. 사회적 가치를 위한 대구형 배달플랫폼 추진 : 대구로
- 14.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인재발굴 및 성장지원
- 15. 도심내 유희공간을 활용한 시민공유공간 조성

시민 중심 기후위기 대응 : RE100시민클럽

01
환경

〈RE100시민클럽〉은 전국 전략의제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목표를 가진다. 공공기관과의 활발한 자원 매칭을 통해 시민참여를 유도한다.

지난 4월에는 RE100시민클럽 발족식을 통해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8월 23일에 대구 RE100시민클럽 발대식을 시작으로 22년까지 1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시민포럼, 투명사회 협약 등 기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RE100시민클럽 추진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대구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부동산원에서 1,750만원을 지원받아 활발한 활동을 시행하고자 한다.

각 지역마다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마을 단위의 햇빛발전소를 건립하고, 그 수익금은 마을 기금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가정 전력 사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현재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전국 단위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효과성이 계속해서 증대될 것 기대하고 있다.



대구 탄소중립 추진 협의체 프로젝트 : 기후위기 대응 시민 역량 강화

02
환경



〈대구 탄소중립 추진 협의체〉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대구지역 다양한 영역의 중간지원조직과 시민사회 간의 협력체계를 구성하였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포함하여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8개 기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사업 및 개별 사업을 추진하며, 주 1회 탄소중립 학습 포럼을 개최해 이해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과의 협업으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개별 사업〈대구 청소년 기후 프로젝트를〉를 진행하며,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대구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기후위기 대응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행동 사례를 구축할 예정이다.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전환 마을 프로젝트 추진

03

환경

〈에너지 전환 마을 프로젝트〉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마을의 주민들 스스로 생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제안되었다.

대구시 탄소중립발전전략과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연계된 광주 탄소중립 전환마을 사례를 바탕으로 대구 에너지 전환 마을의 방향을 설정하고자한다. 에너지 전환 마을 프로젝트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목표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환을 아우르는 것이다.

태양광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하고, 먹거리를 생산하고, 필요한 물건을 만들고 교환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더 나아가 인식과 관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은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의 예산 1,700만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업모형을 위해 녹색소비자연대,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할 예정이다.



청년 진로 및 자아탐색을 위한 도시근교형 갭이어 프로젝트 : 청도

04

청년



〈도시근교형 갭이어 프로젝트 : 청도〉는 2020년부터 1년간 논의 끝에 2021년 2월부터 시행된 의제이다.

올해는 3가지 사업으로 진행한다. 첫 째 영남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과 함께하는 ‘청도희열喜悅(here)’, 둘 째 한국부동산원, 농업회사법인 희망토과 함께하는 ‘청도 청년 농장주 육성 프로젝트’, 셋 째 다로리인과 더컴퍼니씨협동조합이 함께하는 ‘청도 로컬트래블러’를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청도군 5,500만원, 청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2,200만원, 한국부동산원 250만원이 결합되었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한국부동산원·영남대학교의 3자 업무협약을 통해 도농상생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대구·경북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협업 거버넌스 구축의 대표적인 의제이다.

지역유희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 및 주민 커뮤니티 조성

: IDEA COMMONS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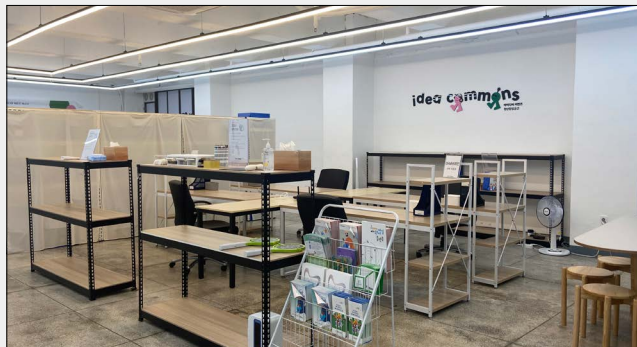
청년



〈IDEA COMMONS〉는 청년 및 공간을 주제로 3년 (2019년~2021년)간 논의한 끝에 도시 내 유희공간을 청년 창업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대구도시공사는 2년간 유희공간 무상임대를 지원했고, 한국부동산원은 공간 조성을 위해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민간에서는 세움 건축이 공간 리모델링 인건비 지원을, 크리에이티브 팩토리는 메이커 스페이스 장비 및 교육을 지원하였다.

청년 창업자의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과 지역 주민 커뮤니티 등을 위한 공간으로 다양하게 이용될 예정으로 민·관·공 협업의 결과물로써 향후가 기대되는 의제이다.



문화예술프리랜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 Fsquare

06

청년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협동조합〉은 2020년 11월 26일에 설립되었다. 대구지역사회는 코로나19로 피해 받은 문화예술 창작자(프리랜서) 사회 고용 안전망 구축(고용보험 가입), 공동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다. 2021년 협동조합의 인지도제고와 이미지 개선을 위해 'Fsquare'로 브랜딩 하였다.

〈Fsquare〉의 공동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19건의 수주 (*21.08.18 기준)를 통해 약 3,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수주기관 : 한국부동산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도시공사 등) 예술인고용보험은 8명의 창작자를 대상으로 22건의 신고와 함께 전액을 지원했다.

자체 수익모델의 개발과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도모하고 있다.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더욱 가시적인 발전과 고도화가 기대되는 의제이다.

엄마와 동반하는 사회적 모성에 기반 마련과 인식 확산

07

공존

〈사회적 모성에〉는 미혼모와 한 부모의 경제적, 정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지역민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아가씨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섬유 소재 핸드메이드 제품을 생산 판매 및 교육, 체험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9년부터 미혼모의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모성에 기반 마련과 인식 확산을 위해 아가씨영협동조합, 한국가스공사 협의하여 새싹 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0년에는 취업교육 및 정서 안정 프로그램, 엄마의 날 행사를 실행하였다.

2021년에는 아가씨영협동조합이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3년 연속 ‘사회적모성에 기반마련’을 위해 4,490만원 예산을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제2회 11월 16일 ‘엄마의 날’을 개최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엄마가 되어 상처를 공유하고 치유하는 〈사회적 모성에〉의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지원

08

공존



〈학교 밖 청소년〉은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교육격차 해소 논의를 시작으로 고도화된 의제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 체험 및 탐색의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20.12 포럼)을 반영하여 2021년 고도화를 진행하였다.

한국장학재단과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대구청소년지원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협업하여 한국장학재단의 2,000만원 예산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체험을 위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꿈드림TV 시즌 2’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꿈드림TV’에 사회적기업·NGO단체를 알림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직업의 다양성을 알리고 사회적기업과의 연계로 다양한 진로체험 및 대구지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기대한다.

매입 임대주택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09

공존

〈매입 임대주택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은 대구 남구 대명동 6·9·11 중 시설이 노후화된 매입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율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CPTED_셈테드)이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 대구도시공사, 대구문화예술프리랜서 협동조합, 계명대학교 사회혁신추진단과 협업한다.

올해는 하반기에 지역사회 전문가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사업 기틀을 다지고,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 공동체 중심, 지역사회 연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2022년에는 지역확대, 범죄 예방의 날 추진, 범죄예방 영상물 제작, 캠페인 등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

: 시민 응원 팝업사진관 운영

10

코로나대응



〈팝업사진관〉은 2020년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로 시작하여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따른 대구 시민들의 높은 피로도 해소 및 격려를 위해 프로필 촬영을 무료로 제공한 프로그램이다.

1회차는 취약계층의 가족사진 및 청년 예비창업자 프로필 촬영, 2회차는 프리랜서 청소년 상담사 20명의 프로필 촬영, 3회차는 한국장학재단 대구센터 창업 지원형 기숙사 입주생 12명의 프로필을 촬영하였다. 이어서 1·2회차 참여자 중심으로 미니 사진전도 운영하여 대구시민들을 위한 응원메시지를 담았다.

자원연계로는 대구청소년지원재단 200만원, 한국장학재단 100만원 지원으로 총 3회차 진행하였다. 8월에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청년 귀향 프로젝트 내에서 취업 사진관을 2회차 운영한다. 향후 하반기에도 기관과 자원연계에따라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 속에서 청소년 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11

코로나대응

〈청소년 문화공간 활성화〉사업은 2020년 공유대구의 '디지털 기술을 통한 유희공간 활용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을 고도화한 사업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 공유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과 협업한다.

10월에는 대구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대표청소년 어울림마당'과 연계한 청소년 중심의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때 대구도시철도공사 300만원, 대구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논의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2년 청소년 의제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지역기업의 성장을 위한 데이터 활용 및 수출역량강화

12

코로나대응



〈지역기업의 성장을 위한 데이터 활용 및 수출역량강화〉는 공공데이터와 수출 프로세스를 활용한 성장을 기대하는 지역 내 3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9월에 개최하려고 한다.

지역 내 기업의 해외 수출 접근성 완화하고, 국내외 공공 데이터 활용법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성공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구경북KOTRA지원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업할 예정이며, 지속 가능한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해 네트워킹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내 기업들의 수출 접근성을 완화하고자 하며, 나아가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

사회적 가치를 위한

대구형 배달플랫폼 추진 : 대구로

13

지역사회

대구형
배달플랫폼

대구로

주인은 대구로 배달은 덕으로

SMART CITY

〈대구로〉는 대구형 배달플랫폼으로 ESG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지향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대구로〉는 배달 회사 생각 대로의 모회사인 (주)인성데이터가 앱 관리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민간 배달앱 대비 낮은 중개 수수료(2%)와 카드결제수수료(2.2%)와 실시간 정산 시스템, 매일 1회 무료 광고 혜택을, 대구 지역민에게는 다양한 쿠폰과 행복페이 결제 추가 할인 및 마일리지 혜택을, 라이더들에게는 오토바이 대여 및 단말기를 제공한다.

〈대구로〉는 친환경 소비를 장려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들에게는 수수료 부담 경감 등 혜택 부여로 우리 모두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것이 다른 배달앱과의 차별점이다. 2022년 공유가치창출 플랫폼으로써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의제이다.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인재발굴 및 성장지원

14

지역사회



〈인재발굴 및 성장지원〉은 대구사회혁신네트워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청도숲체원, 더컴퍼니씨협동조합과 협업하여 추진된다.

신규 인재를 발굴하고, 대구 인재발굴 네트워크 확장, 정기적 행사 진행을 통해 그들의 협력과 역량 강화를 돕고자 한다.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국립청도숲체원에서 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재발굴 및 성장지원〉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그들의 상호 교류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고, 추후에는 인재발굴 역량강화 워크숍, 대구 인재발굴 네트워킹 모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도심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민공유공간 조성

15

지역사회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민공유 공간〉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대구시, 대구도시공사, 한국부동산원, 대구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4자 협약을 맺었다. 올해, 무영당, 대지바 두 근대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향후 추가로 매입할 건물들을 포함해 6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매입한 건축물은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창의적인 시민 공유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민과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중심의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 도시재생 분야의 민관공 거버넌스를 통한 문제 해결의 성공적인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



2021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의제사전: 알쓸신의

발행일 ♦ 2021년 9월 16일
발행처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주최 ♦ 행정안전부, 대구광역시
주관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